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사활

전춘성 진안군수, 기자간담회 열고 사업 추진 의지 밝혀

진안군은 16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 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먼저 사업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인구·농업·경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선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지역경제 및 인구 정책과의 연계 △군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한다. 군은 주민 서명운동과 사회단체 협력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치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간담회에는 진안군이장단연합회, 진안군주민주자치협의회, 진안군에



진안군은 16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변부,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 4개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군과 함께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관내 10여 개 사회단체 또한 유치 지지와 함께 동참 의지를 밝혀, 범군민적 공감대와 추진 동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전북과 충청지역의 청정한 물 공급을 위해 용담댐 건설이라는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

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는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진안군에 단비가 되어줄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이미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진안군의 절박한 상황과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 부처,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시범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서 '장수한우 품평회' 개최

20일 우수 한우 선발 · 인기상 투표 · 공연 등 프로그램 진행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셋째 날인 20일 오전 10시, 논개사당 인근에서 '장수한우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장수한우의 품질은 물론 '베스트 장수한우 인기상' 투표, 공연과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함께 선보인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한우 품평회라는 전문적 과정과 더불어 가

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적 요소가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품평회는 장수한우의 개량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해 경산우, 미경산우, 수송아지, 암송아지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총 8개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 자리다.

우수 농가에는 상금 1,120만 원이 수여되며 농가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수한우 산업 발전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겨울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겨울방학을 겨냥해 지역 내 중·고등학생(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인재육성사관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

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숙학원비 일부(80%, 국민기초생활수급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인재육성사관학교 신청서와 성적확인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각 부부를 지참해 무주군교육발전장학

재단 사무국(무주군평생교육원 2층)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52명(중등 21, 고등 31명)으로, 재단은 공평 기준(올해 기준 일(9.16)부터 보호자 중 1인과 학생의 주소 무주군에 등록 등)과 지원 우선순위를 확인 후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력

무주군,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무주군이 오는 22일부터(∼10.3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민 중 소득 하위 90%(2025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단, 가구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선불카드(대면 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사 누리집·앱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개천절·추석 연휴 기간(10. 3.~9.) 신청 불가)에서 가능하다.

국민바서 누리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0국민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1670-2525), 무주군 소비쿠폰 콜센터(320-2357, 320-2372)로 문의해도 된다.

환인홍 무주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소비 활성화 지원금으로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라며 "1, 2차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만큼 무주군은 1차에 이어 2차분도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로, 무주군 지역 내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무주읍을 제외한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부남면, 하나로마트(구천동농협 무풍점, 본점, 구천동지점, 리조트점, 무주농협 안성점, 적상점, 상곡점, 부남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본격 도입

진안군은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예약시스템은 '진안군 체육시설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단체 방문 시 대표자 1명이 동반 40인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야외구장 특성상 날씨 등 변동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카드 결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 18홀에서 9홀을 추가 조성해 27홀 확대 운영 중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민규 진안군의원, "청년은 진안 생명선이자 미래"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사진)은 15일 열린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 홍보 강화 △읍·면 체육회 지원 확대 △청년 선택검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급하며 "체육시설 이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진안군에서,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룰 핵심 세대"라며, "예방·운동·검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청년건강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축해 청년 건강을 지킬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진안군의 생명선이자 미래"라며 "군수께서는 이를 핵심 군정 과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천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3억7천만 원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먼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유아대상 프로그램 다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무주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에서 가족과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규모는 3ha(축구장 면적의 약 4배)이며 전말대, 깔딱고개, 균형장기, 누워서 하늘보기, 도라솔이집, 숲속난다, 그늘망통과하기, 물놀이장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림청이 제안하는 산림교육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산림체험, 탐방, 학습을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